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1998년 찬양대원 이번주 임명

1998년도 찬양대원 오늘과 17일(수) 임명식 찬양대 총회는 오늘부터 각 찬양대별로

1998년도에 봉사할 찬양대원이 임명된다.

가브리엘·할렐루야·임마누엘 찬양대는 오늘 I·II·III부 예배, 베들레헴 찬양대는 찬양예배 시 각각 임명을 받는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글로리아 중창단과 미가엘 찬양대도 임명을

받는다. 수요일 I·II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호산나·시온찬양대는 11일(수) I·II부 예배 시에 각각 임명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6개의 찬양대가 구성되어 있어 주일 I·II·III부 예배와 찬양예배, 수요일 I·II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히 찬양예배를 담당한 베들레헴 찬양대는 남성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일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한 호산나 찬양대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여성들로 구성된 글로리아 중창단은 기타, 크로마하프 등 다양한 악기를 활용하여 목회자신 학세미나, 김치세미나 등 교회의 행사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로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미가엘찬양대는 주일 오후의 ‘찬양의 시간’과 금요심야기도회 시작 전 찬양집회를 담당하고 있다.

찬양대는 찬양대원 임명식을 마친 오늘부터 각 찬양대별로 총회를 갖고 찬양대의 질적 성숙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찬양대의 목적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에 모

범을 보이며 온 교회와 목회에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

성탄절 행사

■ 성탄축하찬양예배

21일(주일) 오후 5시

성탄축하 찬양예배를 21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드린다. 이날의 성탄축하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주관하며 우리 귀에 익숙한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중심으로 드리게 된다.

■ 성탄축하잔치

24일(수) 오후 7시

성탄절 전야인 24일(수) 오후 7시 1층 예배실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연습해 온 찬양과 율동, 성시낭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은 종전과 달리 오전 11시에 드리던 수요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7시에 한 차례만 예배를 드린다.

■ 성탄절 감사예배

25일(목) 오전 5시, 9시, 11시

성탄절인 25일(목)에는 새벽 5시에 새벽기도회를 드리며 오전 9시와 11시 두 차례에 걸쳐 감사예배를 드린다. 오전 9시에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드리며 오전 11시 예배는 서울교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날 예배 시 드리는 감사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할 예정이다.

1998년도 찬양위원회

지도 민영수 목사
서기 이태상 집사

위원장 윤봉준 장로
회 계 신용식 집사

찬양대	대장	부대장	지휘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가브리엘찬양대	정병무	신용식	허희철	안진희	양경실
할렐루야찬양대	윤봉준	조정식	박정선	조은주	정은영·윤은숙
임마누엘찬양대	김상철	맹선재	배영준	한현숙	백송희
베들레헴찬양대	김대호	오형철	임훈규	유혜련	홍혜란
호산나찬양대	황정임	박우옥	서희숙	홍혜란	-
시온찬양대	김영준	백수남	강민희	양경실	김지윤

‘100교회 운동’ 새해에도 계속

1998년도 후원자 신청 접수

농어촌미자립 교회를 돕는 ‘100교회 운동’이 새해에도 계속된다.

우리 교회는 교회설립 3주년을 기해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는 ‘100교회 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5년 1월부터 이 운동을 시작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다락방, 교회학교, 찬양대 그리고 개인과 가정 등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결연하여 1995년에 106개 교회, 1996년에 110개 교회, 1997년도에 117개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였다.

100교회운동본부에서는 개인이나 부서별로 올해에 결연한 교회를 내년에도 계속하여 지원하

“주간성경공부” 마무리

21일 접수 마감 ... 28일 시상식

‘1년 1독을 위한 주간성경공부’ 올해 마지막 문제지가 오늘 배포된다.

오늘 배부된 문제지를 포함하여 올해 배부된 주간성경공부 모든 문제지의 접수 마감은 다음 주일(21일) 찬양예배 후이다. 주간성경공부는 문제를 풀면

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행정상의 확인을 위해 모두 재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 일에 새롭게 참여할 성도들의 신청도 기다리고 있다.

문의는 전도위원회 혹은 이상진 목사에게 하면 된다.

서한 해 동안 신구약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간 ‘주간성경공부’의 참여도와 채점 점수를 계산하여 성적이 우수한 성도에게 28일(주일) 찬양예배 때 상을 하기로 했다.

이사야

황폐한 나라 이스라엘

1장 5~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영적인 은혜들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향해 매를 드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단면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이러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I. 회개하지 못한 자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온통 매 맞은 흔적 뿐인데 그 위에 또 다른 죄로 인하여 새 매를 맞고 있습니다. 매를 맞으면 깨달을 법도 하고 돌아킬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패역한지 점점 더 하나님께 반항하고 황폐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온 머리는 명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는 이성작용이며 마음은 감성작용이라고 한다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병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질병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현재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한 곳이 없습니다. 공의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범죄로 인해 온통 상처 투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며 매를 맞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를 맞으니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바를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몹시 불안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하며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II. 희망이 없는 백성의 모습

비참해질대로 비참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탄식을 해보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땅이 황무했다는 말은 농사지를 젊은이가 모두 죽었다는 뜻입니다.

한반도는 몇 시간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가뭄이 계속 되다가 비가 오기만 하면 홍수 피해를 입습

니다. 국토가 황무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는 북한뿐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사야 1장이 언제 쓰여진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열왕기하 15장에 근거하여 요담왕 때 쓰여진 것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롬9:27).

따라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더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어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니”



로 추측하고 있습니다(왕하 15:34).

요담 왕이 산당을 제하지 않은 연고로 아람 왕의 침공을 받습니다. 요담이 웃시야 왕에 이어 선정(善政)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하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외적의 침략을 받게 하시고 땅을 황무케 하며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통문화’라는 미명하에 전근대적 미신행위가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III. 남은 자

구약에서는 도시를 표현할 때 주로 여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이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추수가 끝난 포도원의 망대가 무슨 소용이며 원두막의 상직막이 무슨 소용입니까? 에워싸인 성읍이란 인적이 끊긴 두려운 도시를 말합니다.

만군이란 별들이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이 여호와라는 말은 별들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별들뿐 아니라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택함을 받아 구원받을 백성을 남겨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고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첫째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오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남은 자(surviving remnant)’이며 다른 하나는 핍박을 받아 격였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갱신된 ‘남은 자(renewal remnant)’입니다. 이 두 종류의 남은 자가 마지막 때에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습이라고 지었습니다(사7:3). 그 이름 속에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Remnant shall return)’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수는 지금껏 적습니다. 우리는 멸망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남은 자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방의 빛으로 삼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었습니 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나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며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들어보는 새 해 소원 ①

“새 해는 새 예배당 짓는 해로!”

이종윤 목사

첫째, 새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인정하고 건축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현실주의적 신앙 생활을 하려는 이들은 가끔 불황과 상황을 앞세워 교회 건축에 회의적 반응 또는 궤방자적 입장에서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어야 할 하나님의 집 건축을 미루다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지 않았던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 절명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설령 나에게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더라도 그렇다.

둘째, 서울교회에 부여된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새 예배당 짓는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한다. 우선권 순위에서 가

정과 직장보다 교회 짓는 일이 앞서야 한다. 서양사람들의 교회를 옮겨다 놓은 건물이 아니라 민족의 양심이 되고 하나님 복음의 산

새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인정하고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절제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쉬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1998년도는 '새 예배당 짓는 해'가 되어야겠다.

실이 될 우아하고 희망찬 21세기 도시교회 모형을 갖춘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집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설령 우리 현실에 벅찬 것 같고 힘이 들어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건축이 되도록 우리

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정성을 다바쳐야 한다.

셋째, 새 예배당 건축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이 절제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음식 물찌꺼기가 연간 7조원이라니 우리는 민족적으로 각성해야 하겠지만 교회도 군살빼기 운동을 해야 한다. 각 기관마다 회의비나 선물 또는 상품비를 줄이고 자신의 허리띠를 먼저 졸라 매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사치스럽고 낭비적이다. 지금부터라도 의식주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을 조금씩 더 검소하게 해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산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쉬임없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구하면 주 시리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 예배당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고 벽돌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쌓고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으로 된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1998년도에는 '새 예배당 짓는 해'가 되어야겠다.

제헌국회기도문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

1946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 1차 본회의록에 수록된 '제헌국회기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

이는 이승만 박사가 단상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들기 전 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여 이윤영 의원(목사)이 기도한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299명 중 120명이 기독교인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새벽 조찬기도회를 가지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200 여 명의 회원들이 나라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다. 작금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 이승만(임시의장)

“대한민국 독립민국 제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의원(목사)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윤영의원 기도

(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꺾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정시(呈示)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을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塗炭)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상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태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

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사무를 완수하게 도와 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료제공: 국회 사무처

소년소녀가장·무의탁 노인을 위한 음악회

22일(월) 오후 7시 서초구민회관에서

서초구 내의 소년소녀 가장과 무의탁 노인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가 22일(월) 오후 7시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는 제 1부 예배에 이어 제 2부는 서초구의 9개 교회가 준비한 연주, 중창, 합창 등

성가곡으로 발표회로 진행된다. 우리교회에서는 “하나님 멀리하지 마소서, 오 거룩한 밤” 등 두 곡의 4중창으로 이 음악회에 출연한다.

음악회 관람 문의는 찬양위원회로 하면 된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인 성도에게 고유번호 부여

우리 교회 제직 중 동명이인인 경우 이름 뒤에 아라비아 숫자로 고유번호를 붙이기로 했다.

이는 그간 같은 이름이 2~6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임명이나 예배 순서 담당 등에 다소 혼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붙여진 고유번호는 21개 이름 46명의 제직에게 부여되며 앞으로 교회 내에서 발간하는 각종 유인물이나 요람 등에는 반드시 이 고유번호를 사용케 된다. 고유번호의 순서는 교적번호 순에 따라 정한 것이다.

고난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사는 고난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역사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하나같이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극심한 고난을 극복하고 구출되는 기적을 만들어왔다.

무슨 비결이 있었을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그대로 행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의 필요는 느끼되 그것을 남에게 청탁만 하려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큰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비탄과 절망 그리고 불평이 아닌 기도하는 백성이기에 저들은 고난을 뚫고 이기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주여, 우리의 고난을 구속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지난 3일과 4일에 우리교회 식당도 월동준비를 했다. 김장을 마치고 수고한 손길들이 한자리에서.

등정

◆ 이번 주 봉사자를 위한 식사는 오정수 장로·이영희1 집사가 정에서 제공했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98년도에 수고할 각 부서 일꾼들을 위해
2. 나라와 민족을 위해
3. 환우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이름·번호	교적번호	다락방	이름·번호	교적번호	다락방
김영주 1	0081	역삼 2	송순옥 1	0299	마포
김영주 2	1554	명일	송순옥 2	1908	삼성
이영서 1	0939	용산 2	이명숙 1	0150	반포 5
이영서 2	0876	잠실	이명숙 2	0426	목동
이영주 1	1208	논현 15	이순희 1	0745	청담
이영주 2	1112	반포 1	이순희 2	1100	논현 3
이종호 1	0052	신사	이영숙 1	0407	반포 1
이종호 2	0166	구리	이영숙 2	1161	용산 2
김명숙 1	0021	도곡주공	이영자 1	0009	미아
김명숙 2	0053	상계 1	이영자 2	0163	성보 2
김순자 1	0147	홍파	이영희 1	0005	개나리 2
김순자 2	1907	청주	이영희 2	0133	구리
김순희 1	0178	안양	이영희 3	0263	반포 6
김순희 2	1949	과천	이영희 4	0487	군포 수원
김윤자 1	0127	구로 광명	이영희 5	0679	역삼 3
김윤자 2	0370	일원	이영희 6	1911	인천 부천
김혜영 1	0091	오금	이용자 1	0164	수지 2
김혜영 2	1862	사당	이용자 2	0335	잠원 1
박경희 1	0409	역삼 5	이은희 1	0705	논현 3
박경희 2	1127	분당 4	이은희 2	0835	대치 4
박순옥 1	0032	서초 1	이현숙 1	0738	방이
박순옥 2	1214	역삼 1	이현숙 2	0563	잠원
박순자 1	0504	성남	전정숙 1	1096	진달래
박순자 2	1719	대치 3	전정숙 2	1311	상도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